일자리 필요하다면 조계사로 오세요

조계사, 일자리 나눔터 운영

#사례1 박모(여 · 39세)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있던 중이었다. 그러다 우연히 조계사에 들러 '조계사 일자리 나눔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해 일자리 상담을 받은 뒤, 출판사에 이력서를 보내고 합격해 다니고 있다.

#사례2 명예퇴직 후 동사무소에서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최모(남 · 55세)씨는 '조계사 일자리 나눔터'를 통해 S생명 법인영업직으로 자리를 옮겨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

#사례3 집안사정이 어려워져 일자리를 구하고 있던 가정주부 김모(여 · 59세) 씨는 '조계사 일자리 나눔터'를 방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상담 받은 뒤, 한정식 레스토랑에 취업해 주방보조일을 하면서 월120여 만 원을 받고 있다.

#사례4 칠순을 앞둔 추모(남 · 69세)씨는 경비직을 희망하는 구직자였다. '조계사 일자리 나눔터'는 나이에 비해 젊고 성실해 보이는 추 씨를 구인업체에 적극 추천했고, 현재 추 씨는 주차관리업무를 하며 활기찬 노년의 삶을 살고 있다.

#사례5 종로 인사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이 모(여 · 50)씨는 주방보조 인력을 구하던 중, '조계사 일자리 나눔터'에서 인재 알선을 해준다는 홍보물을 보고 방문해 직원을 채용했다.

조계사가 '조계사 일자리 나눔터'를 개설하고 종로구청 산하 '종로구일자리플러스센터'와 협력해 양질의 일자리와 인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사무실을 방문해 김가은 팀장(왼쪽)과 상담하고 있다.

종로구청과 협력해 일자리 제공
개소이후 39명 일자리 얻어
매일 5~6명 방문해 상담

해가 거듭될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계사(주지 도문)가 나섰다. 구인 ·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알선해 호응을 얻고 있다.

조계사는 2012년 10월 25일 종무소 2층에 '조계사 일자리 나눔터'를 개설하고 종로구청 산하 '종로구일자리플러스센터'와 협력해 양질의 일자리와 인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2년 10월 개소이후 2013년 4월까지 106명이 구직신청을 하고 39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가졌다. 이들은 지역사찰 종무소 직원 및 공양주, 불교용품점 직원 등 불교와 관련된 일자리 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중학교 상담교사, 경비 · 주차관리인, 주방보조 등 다양한 일자리를 찾았다. 지금도 매일 5~6명의 구직 · 구인희망자가 '조계사 일자리 나눔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고 간다.

구직 · 구인신청은 간단하다. 일자리 또는 인력이 필요한 구직 · 구인 희망자는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조계사 일자리 나눔터'를 방문해 상담봉사자들과 구직 · 구인 상담을 받은 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조계사 일자리 나눔터'는 작성된 신청서를 '종로구일자리플러스센터'로 제출한다. 이후 센터는 서류심사를 통해 구인업체 또는 구직자에게 면접을 볼 수 있게 해 취업 · 채용을 돕는다.

마음의 위안도 함께 주는 곳

조계사가 도심포교 100주년을 맞아 시작한 핵심사업인 '조계사 일자리 나눔터'는 포교 역할까지도 톡톡히 하고 있다. 절에 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던 사람들 중 용기를 내 일자리 나눔터를 찾는 것이다.

김가은 일자리나눔터 팀장은 "일자리 나눔터가 사찰 안에 있어서인지 내담자들은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다"며 "이곳에서 활동하는 봉사자 7명은 내담자가 원하는 직업과 인연이 되기를 간절히 발원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팀장은 "종교단체에서 구직 · 구인을 알선하다보니 종로구청과 구직자들로부터 얻는 신뢰도가 높다"며 "중개 수수료도 없어 구인등록을 하러오는 업체 사장들도 점점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직을 희망한다고 모두다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성실성이 가장 중요하다.

김가은 팀장은 "구직희망자와 상담하면서 성실성과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 등을 참고한다. 특히 50~60대 구직자분들은 자신이 했던 일이나 직위만 생각하다보면 재취업할만한 곳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눈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계사 일자리 나눔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상담은 사무실을 내방하거나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02)768-8541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한국JTS, 두유 3만개 전달

불교방송도 난치병어린이돕기 4300만원 전달

한국JTS(이사장 법륜)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두유 3만개를 지원했다.

법륜 스님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5월 30일 전법회관 6층에서 희망두유나눔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한국JTS와 연계한 '희망두유 나눔' 캠페인으로, JTS는 5월 14일 전국 46곳 독거노인과 청소년들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에게 고칼슘 영양두유 3만개를 나눠줬다.

한국JTS는 국제기아, 질병, 문맹 퇴치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희망 두유 나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5월 9일 서울시복지재단을 통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노인종합복지관에 8억 원 상당의 '희망 두유' 35만개를 전달한데 이어, 이번에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연계해 전국 사회복지시설 46곳에 6600여 만원 상당의 두유 3만개를 지원하게 됐다.

법륜 스님은 "우리단체의 설립목적과 같이 가난과 신분적 차별 때문에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지구촌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인류애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지난 5월 초 사전 신청 접수를 통해 대상기관을 선정했으며, 시설 규모 및 대상자에 따라 3만개의 영양두유를 전국에 지원했다.

한편 불교방송도 난치병어린이돕기 모연금 4300만원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원경 스님)에 전달했다. 5월 27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6층 프로그램실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원경 스님, BBS 불교방송 이채원 사장 및 '거룩한 만남' 제작팀 등이 참석했다.

(사진 왼쪽부터)김기진 JTS 공동대표, JTS 이사장 법륜 스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원경 스님, 박지나 JTS 공동대표.

불교방송 '거룩한만남'을 통해 ARS로 모연금을 마련한 불교방송 이채원 사장은 "5회에 걸친 생방송을 통해 4300만원을 모았다.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렇게 전달식까지 갖게 되어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불교발전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 스님은 "이날 전달받은 불교방송 모금액과 서울조계사 및 전국 사찰에서 동참한 현장 모금액, 5월 한 달간 지속된 온라인 모금액을 합쳐 오는 7월경 난치병어린이에게 치료비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6월중 난치병 환아 40여명을 선정하고 치료비 및 수술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혜숙 · 이나은 기자

한국다문화센터, 후원회 결성

레인보우합창단 재원 마련 위해…이인제 의원 이사장 새로 맡아

한국다문화센터 후원회원과 레인보우합창단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다문화센터

(사)한국다문화센터(공동대표 무원)는 5월 29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8층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다문화센터가 운영 중인 '레인보우합창단'과 '서울시작다문화대안학교'의 운영재원 확보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날 한국다문화센터 후원회가 결성됐다. 또한 레인보우합창단 이사장인 진영 복지부장관이 현직 장관으로 겸직할 수 없게 돼, 이인제 의원(새누리당)이 새로 맡게 됐다.

이날 한국다문화센터 후원의 밤에는 이인제 의원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해 한국다문화센터 상임고문인 보선 스님(前 조계종중앙종회의장, 대흥사 회주)과 이춘호 EBS이사장, 김영선 전의원, 이영희 한복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국다문화센터는 2008년 출범 이후 최초의 다문화어린이합창단인 '레인보우합창단' 활동을 비롯해 중도입국 다문화자녀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는 '서울시작다문화대안학교(중학교과정)'를 설립했으며, 서울시 · 현대정몽구재단과 함께 '서울온드림다문화가족교육센터'를 설립 운영하며, 한국의 대표적 다문화지원 시민단체로 성장했다.

이나은 기자

광명고 파랑새둥지 봉사단 2주년 맞아

철산복지관, 광명고와 어르신 결연봉사 실시

'파랑새둥지' 봉사단이 3기 발대식을 가졌다. 광명고등학교 학생과 네가정은 한조가 돼 매월 1회 이상 독거 어르신을 찾아뵙고 봉사한다.

철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강영규)과 광명고가 협약해 2011년 조직된 가족봉사단 '파랑새둥지'가 2주년을 맞았다.

봉사단은 5월 25일 철산복지관 강당에서 3기 봉사단 34가정(68명)과 결연된 어르신 9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다. 이 날 철산종합복지관 강영규 관장, 광명고등학교 서정렬 교장 등 봉사단 임원들이 참석했다.

파랑새둥지 봉사단은 학생들에게 경로사상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나눔의 정신을 배우기 위해 조직된 단체다. 4가정이 1조가 돼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재가 대상자 중 광명고등학교 주변 독거 어르신 중심으로 결연해 매달 1회 이상씩 가정을 방문해 간식 만들어드리기, 집밖 나들이하기, 집안 청소하기 등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년 동안 총 83가정(166명)의 봉사자는 현재까지 월 1회 봉사활동, 정기 간담회와 연말 송년잔치를 통해 결연된 어르신께 정서적 지지는 물론 건강한 신체활동을 제공해 보다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파랑새둥지 봉사단은 최근 '2013년 광명시 제41회 어버이날' 기념 행사에서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광명시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나은 기자

공 고

불, 법, 승, 삼보에 귀의하옵고
그동안 불법홍보와 수행정진에 매진하시고 계시는 종도 여러분들의 사 · 암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 하옵기를 기원 드립니다.

종헌 제 19장, 종법 제48조, 제233조, 제234조에 의거 「현대불교 : 제 911호 공고 문서번호 : 제 12-04호 종단 효력 상실 및 총무원 폐쇄〈부산 동래구 세무소〉」에 대하여 사부대중의 발원으로 원만하게 성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사용하는 종단명 「대한불교원조계종」은

· 법 인 단 체 등 록 : 2009년 9월 4일 (사)한불총 7-2호
· 창 녕 군 청 등 록 : 38341-00666, 2010년 6월 15일
· 법 원 등 기 완 료 : 2010년 6월 3일
· 마산세무서 단체등록 : 2010년 6월 29일에 하였음

위 2009년 9월 4일 이후에 어느 기관에 등록된 유사 단체명도 본 종단과 무관하며 유사시 법적으로 대처 할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창녕 군청 및 법원」에 등록된 종단명 「대한불교원조계종」은 사용하셔도 되고,

■ 「마산 세무서」에 등록된 「사단법인 대한불교원조계종」 종단명도 위와 동일하므로 사용하셔도 무관하겠음을 공고 합니다.

등 록 서 류 (유사 단체에 유의하시고 등록 합시다)

①등록원부 ②선서문 ③법당사진 ④주민등본 ⑤여권사진 4매 / 사부대중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기대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대한불교원조계종 법인 대표 총무원장 적홍 만오 합장

사라져 가는 팔공산 범음 범패 염불소리를 살리고자 소승이 교육원을 개원하여 제2기 수강생 을 모집합니다.

교육현황

초급 의식 염불과정		
일반	6개월	(주1회 2시간)
속성	3개월	(주1회 3시간)

▷과 목 : 초발심자경문, 사미율법, 바루공양법, 요령목탁사용법, 천수경, 반야심경, 새벽도량석염불, 팔공산소리새벽종성염불, 각단예불, 각축원편, 사시마지불공, 관음시식

중급 의식 염불과정		
일반	12개월	(주1회 2시간)
속성	6개월	(주1회 3시간)

▷과 목 : 시련, 삼신이운, 104위신중작법, 시다림, 49재천도의식, 다비편, 방생편, 각종고사, 각점안식염불, 구병시식, 생전예수재의문

특수 작법	
6개월 과정	(주1회 2시간)

* 작법은 (일반) : 속성이 따로 없음

▷ 복청게, 사다라니바라, 천수바라, 사물타법 도량게(나비춤), 오공양작법, 화청

모집인원
• 선착순 : 30명

모집기간
• 수시모집
※ 신청하실분은 본원에 직접 나오셔서 접수하시고 교육일정 시간표를 꼭 받아가십시요.
그리고 수강신청 접수하시고자 본원에 오실때는 필히 명함판 사진 2매를 가지고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개 강 일
2013년 6월 8일(토) 오후 3시(초급반 일반부)
※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교육원 원장스님과 직접 상담하여 주십시요.

▶ 교육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2동 871-1번지
TEL 053)781-4200, 851-2666 / H·P 010-3424-0108

대구불교의식 범음 범패 교육원 원장 동현 합장